

불교TV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해외불교의 현황을 살펴보는 기획프로그램 '다시 일어나는 베트남 불교'와 '크메르인의 미소-앙코르와트(PD 김형준)'를 제작한다.

인도차이나반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대승불교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고 또 전체 인구의 80%가 불교신자인 베트남을 찾아 베트남 불교의 역사와 현재를 조망할 '다시 일어나는 베트남 불교'는 베트남 불교와 한국불교의 교류가 전무한 상황에서 불교와 승려의 나라 베트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양국간의 이해를 증진, 나아가 양국간의 불교교류 촉진을 앞당길 계획이다.

# “베트남불교 안방서 본다”

불교TV 초파일 특집 '다시 일어나는...' '크메르인...' 제작

담당 김형준PD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베트남 불교의 지력과 역동성을 보여주고, 베트남 현지 한국인 2세 라이더

이현의 생생한 인터뷰로 중생 구제의 종교인 한국불교가 이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두고와 불교가 혼합된 독특한 조형양식과 건축미로 불교의 새로운 성지로 추앙받고 있는 앙코르 와트를 종교적인 측면에서 고층하게 될 '크메르인의 미소-앙코르 와트' 편은 현재 복원이 한창 진행중인 앙코르 와트, 그 관세음의 나라로 시정자

들을 안내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이 프로그램은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인 캄보디아의 현황을 찾아 캄보디아 불교교단의 민낯 구호 활동도 살펴볼 예정이며 아울러 캄보디아 캄에서 우리는 선수가 지원하고 있는 캄보디아 고아원 등을 방문, 현지 승단지원과 난민돕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불교계의 활동도 소개할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 지자대사 진영

◇ 대각국사 진영

## 천태종 지자·대각국사 영정 조성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최근 구인사 조사전에 봉안할 지자대사와 대각국사의 진영을 조성했다.

이번에 제작된 진영은 세로 188센티에 가로 119센티 규모로 대각국사는 순천 선암사의 영정을 정면상으로 현대화 시켰으며, 지자대사는 중국 국청사의 일본 연력사의 영정을 곁중하여 동국대 순연철교수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의 작업 끝에 완성한 것이다.

순연철교수는 "비단천에 천연의 색을 가루내 채색하는 석채를 이용했다"며 "고려의 전통기법인 복채로 자연스러움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태고종 직영사찰 조사 태고종(총무원장 혜초)은 지난 2일 '직영사찰 살대조사위원

회(위원장 인공)를 구성하고 종단내 직영사찰의 현황을 파악하여 총무원에게 반영키로 했다.

직영사찰 살대조사위는 직영사찰의 ▲재산보존상태 ▲주지 임면현황 ▲신도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종단의 관리방향을 마련하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위원으로는 법인 무불 혜연 무위스님이 임명됐다.

이처럼 천교련은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외치며 청소년들과 함께 호흡하는 교계의 유일한 청소년 단체로 새싹불자 포교활동을 전개해 왔다.

## 새싹불자 포교 전위대 '평가'

천교련 창립 30주년...14일 도선사에서 기념법회

1966년 청소년 포교의 부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당시 천교련은 대의스님(초대총재), 안병호씨(초대회장), 운문스님 등이 뜻을 모아 한국불교에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회를 바탕으로 건설한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천교련은 교계 최초로 개최한 불교음악발표회와 예술제(67년)를 시작으로 그동안 교육, 수련, 문화, 지역사회복지사업활동 등을 주요사업으로 청소년들의 전방포교활동을 펼쳐왔다.

이처럼 천교련은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외치며 청소년들과 함께 호흡하는 교계의 유일한 청소년 단체로 새싹불자 포교활동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초창기 천교련은 순탄



◇ 천교련 스님

## 회원 6만3천여명...봉사·국제교류등 강화 모색

하지만은 않았다. 청소년 포교에 대한 관심부족과 범종단차원의 지원부재 그리고 내부적인 조직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교련은 지난 89년 체육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청소년 포교를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슬한 역경을 이겨내며 30년동안 청소년 포교활동만 고집해 온 천교련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도선사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법회를 시

장으로 제2의 도약을 선언하고 있다. 청소년연대대회, 청소년 종합예술경연대회, 어린이 청소년 연합체육대회, 청소년 간부수련대회, 청소년 콘서트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악물남용 예방캠페인, 청소년 율리회복 실천대회, 환경보존 캠페인 등도 연행행사로 실시하는 등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한다는 것.

현재 서울지부를 비롯 11개

지부 3개지회 21개의 시설에 6만3천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는 천교련은 앞으로 조직을 활성화 해 청소년 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30주년을 분수령으로 청소년자원봉사활동과 국제교류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어 천교련의 활동은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다.

이를위해 천교련은 현재 운영중인 6곳의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를 확대개편하는 하는 한

권 청소년들에게 순수봉사활동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는 것이다. 또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청소년포교 관련프로그램도 변화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제교류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청소년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청소년 포교를 위해서는 청소년 포교이론과 자료의 개발, 체계적이고 일관된 조직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활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중근 기자

조계종 120회 임시총회가 지난달 31일 끝났다. 이번 총회는 95년도를 결산하는 결산총회였다. 또한 안건정비를 위한 종법제정과 시급히 처리해야 할 종단현안문제를 상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총회는 종도들의 기대와는 달리 종회사에 부끄러운 회기로 남게되었다. 성원이 되지 않아 자동적으로 폐회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총회는 종단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은 하나같이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안건들이 총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면 종도들에게

는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이번 총회가 성원이 안되어 폐회되고 말았으니 어떠한 이유로도 비난을 면치못하게 된 것이다.

총회의원의 출석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개혁불

참다보니 종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운영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일부의원은 총회의 주인이 아닌 방관자로 자리만을 차지하고 있기도 한다.

총회의원은 결코 명예직이 아니다.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최소한 소속부과의 흐름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총회가 입법과 집행부의 감시 감독을 한다면 종도들은 총회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준엽 기자

## 총회의원 명예직 아니다

사와 함께 출범한 현총회는 '종회 무소불위 시대'를 느끼기에 충분한 만큼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먹구구식 종단운영을 지양하고 총회를 통해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막강한 힘이 부여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총회는 각 분과별로 무려 1백 50여회의 회의가 있었던건만 보아도 총회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총회가 내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테 한 번들로 열린 회의도 성원이



목탁소리

## 불교영화 바꾸기

다. 그런데 그 30만장은 어디로 갔는지 자취조차 알수 없다.

애당초 제작사인 일목필필축은 초파일까지 흥행을 예상했으나 하루평균 1천명의 관객이 들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

최종 간판을 내려야 할 형편에 처해있는 것이다.

카루나의 이일목감독은 "대중상 영화제에도 이미 출품을 마쳤는데 이렇게 흥행실적이 저조할 경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며 불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하고 있

다. 종교영화 제작은 대중성이 없고 흥행도 예측하기 힘든 상대라 일반 오락영화에 비해 기획자세가 어렵다. 작품이 잘못느냐 못됐느냐를 지적하기 이전에 불교영화화 흥행면에서

한번 실패하게 되면 불교영화의 계속적인 제작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변한 현실이다.

불자들이 불교영화를 봐 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90년 불교영화 '달마가

등쪽으로 간 까닭은'이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하고 관객 동원에서도 성공한 이후 이에 자극받아 몇몇 불교소재의 영화들이 제작됐었다. '영화'는 대중예술이기 때문에 불교영화화 제작과 상영된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대중포교방편도 없을 것이다.

수준이 떨어지는 작품은 채찍질해서 보다 완성도를 높이고 수준높고 작품성있는 불교영화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하는 힘은 바로 우리 불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은자 기자

실용신안 : 제14461호 의장등록 : 제12382호

**이제 연등에 변잡한 풀집이 필요 없습니다!!**

# 홍법등

오직불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작·이·간·편·한·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난장으로 풀집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2분내에 완성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정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불교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아·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정열」에 활용

재·사·용·가·능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여 수 회의 재사용이 가능」토록 고안.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단화된 유동 구조적 가격을 배제한 「시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취급편의 봉축행사용품 일체

홍법발각등, 초발등, 명가등, 천도광명등, 삼재소멸등, 만불기, 천수다라니등, 교패(불자지침, 교등안전기원패)

※전국 불교용품점 및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오직 불심으로 보듬하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 2동 398-6

**홍법기획** TEL : (032) 613-4027, 4028 FAX : (032) 665-0965

“암, 종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흥터가 생기지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현제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으신가?  
주위에 오래기간 병을 낫고자 별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래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언제입니까?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쑥뜸을 먼저 써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바라밀쑥뜸으로 완전히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께서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폐암, 위암, 대장암, 간염, 간암, 신경통,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경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근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비염,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전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쑥뜸기 내용

1) 바라밀 쑥뜸을 쓸 수 있는 15가지 도구세트화(강화약쑥 약 2개월분 포함)  
2) 쑥뜸 도구 일체 반영구적  
3) 쑥뜸기 핸드북으로 전가족이 사용  
4) 노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는 제일입니다.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효험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쑥뜸기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구입문의 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본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동 3동 581번지 (한신빌딩 5층5호)  
 ● 부산광역시 (051) 516-2713 (지정장서)  
 ● 대구광역시 (053) 323-2508  
 ● 대전광역시 (042) 222-4536  
 ● 광주광역시 (062) 228-8544  
 ● 서울특별시 (02) 597-7581  
 ● 서울특별시 (02) 747-7033  
 ● 부산광역시 (051) 516-2713 (지정장서)  
 ● 대구광역시 (053) 323-2508  
 ● 대전광역시 (042) 222-4536  
 ● 광주광역시 (062) 228-8544  
 ● 서울특별시 (02) 597-7581  
 ● 서울특별시 (02) 747-7033